



막으려는 학교, 넘으려는 사람들

코로나19로 학교가 정문을 제외한 모든 통로를 차단했지만 사람들이 후문의 좁은 틈을 통해 출입하고 있다.

(사진=장보경 기자)

비대면 수업 무기한 연장,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점이 기준 (코로나19)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이 무기한 연장됐다. 중간고사는 출석시험을 제외한 방식으로 실시되며 1학기에 치러지는 시험은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지난 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이하로 격하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균태 총장은 서신을 통해 “확산세가 언제 누그러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경계단계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무처는 ▲중간고사 출석시험 미 실시 ▲1학기 절대평가 적용 ▲시험·실습 수업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 등을 공지했다. 추후 대면 강의로 전환되는 일정은 구성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 간격을 두고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중간고사는 출석시험이 아닌 과

1학기 중간고사 출석시험 미 실시, “시험 방식은 교강사 재량”

1학기에 치러지는 시험에 한해서 절대평가 적용

시험·실습 과목은 오는 20일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

제물 평가 등의 방법으로 대체된다. 학사지원팀은 “중간평가 방식은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며 “중간고사 실시여부 또한 교강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시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사지원팀은 “중간고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이번 학기에 한해 중간고사 기간 이외에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희선(경영학 2018) 씨는 “온라인 시험의 경우 교재를 참고하거나 친구와 답을 공유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정성이 보장되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정 씨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공정성 보장에 도움

이 될 것”이라며 “여건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시험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세대학교는 공정성 논란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1학기 중간고사 온·오프라인 시험을 모두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학교 학사지원팀은 “온라인 시험은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해 추천하지 않는다”며 “다만 새로운 학습관리시스템인 ‘e-campus’에선 온라인 시험을 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는 6월에도 대면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기말고사 또한 출석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이 경우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교강사 재량에 따라 평가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학기에 치러지는 시험에 한해서 절대평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학사지원팀은 “비대면 강의가 연장됨에 따라 중간

고사 출석시험 실시가 어려워지고, 기말고사 시행도 불투명해졌다”며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다른 학생과 비교 평가할 수 없어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절대평가의 기준 또한 교강사의 재량에 따를 예정이다.

시험·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대면 수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학사지원팀은 “4월 20일부터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정부가 2주 더 연장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춰 제한적 대면 수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이 제시한 ‘시험·실습 강좌 운영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의 범주 안에서 학생 소통 및 각 단과대학장의 승인이 이뤄져야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강의 전후 소독 방역 철저 ▲시험이나 실습 수업 시간 초과하지 않기 ▲개인위생 준수 ▲강의 전후 강의실 환기 ▲가능한 넓은 공간에서 사람 간 적정 거리 유지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실습 강좌는 집중 이수기간(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을 통해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집중 이수기간이 계절학기 운영기간과 중복돼 계절학기 수강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계절학기는 학사 일정상 변경이 어려워 현행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험·실습 보충강의가 있는 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캠 총학생회는 ‘비대면 수업 추가 연기에 따른 학생 대책 요구안’을 통해 수강신청 정정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수업의 질 및 계획을 확인한 후 강의를 정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정기간의 취지”라며 “수업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사지원팀은 “수업을 시작하지 한 달이 돼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강 정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추가로 수강학점 철회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국제캠 비대위 인준 투표, 온라인 마감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지난 10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스페인어학과, 원예생명공학과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정식 인준 찬반 투표가 이뤄졌다. 이번 투표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 일부 단위에 한해 이뤄졌다.

투표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다. 이때 투표자 신분은 경희대학교 웹메일 계정으로 확인했다. 투표율이 50%를 넘어야만 개표가 가능하며 3분

의 2 이상의 찬성(66.66%)을 받아야 인준된다. 지난 10일 모든 단위에서 투표율 50%를 넘겨 오는 13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비대위 정식 인준은 지난 7일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2020학년도 학생회 재·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결정에 따른다. 지난달 30일 중선관위는 “코로나19에 의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선거시행세칙」 1장 7조 3항에 따라 ‘비대면 강의 무기한 연장 시 선거 무산’을 의결했다. 이에 국제캠 총학생회 양성

민(원자력공학 2015) 회장은 “비대위는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선관위는 선거보다 비대위 정식 인준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재·보궐선거는 아직 논의 중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오는 13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단위별 사항을 파악할 것”이라며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선거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학대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일정을 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병오 생물학과 명예교수 별세

원병오(생물학) 명예교수가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우리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반도 남쪽에 새가 모두 450종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새로운 조류를 50여 종 발견하는 업적을 냈다. 또한 수원캠퍼스(현 국제캠퍼스) 설립에 일조했다.



(사진=중앙일보DB)

알림

사령

명

〈서울뉴스팀장〉 장보경(언론정보학 2018)

〈정기자〉 김창호(언론정보학 2019), 박창원(국제학 2018)

시선

사설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 패러다임 전환

지난 3일 학교 측은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장기한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이하로 완하될 때까지다.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자 학생들의 등교를 사실상 무기한 미룬 것이다. 이로 인해 약 2주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뒤 대면 강의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학사일정 또한 변경됐다. 학생들은 4주째 모니터 너머로 교원과 마주하며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준비된 단계에서 시행된 전면 비대면 강의가 아니었던 만큼 불만의 목소리는 불가피 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출석을 부르는 데만 30분 이상 소요됐거나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통제가 안됐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대면 강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적은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효과적인 강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기·실습 등의 수업은 상황이 더 어려웠다. 일부 학생들은 실기실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해 교육의 질이 체감 상 더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을 표했다.

교원 역시 전면 비대면 강의 체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비대면 강의를 진행해본 소수의 교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온라인 강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 교원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지 않던 세대인 만큼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건 더욱 익숙하지 않아 난관으로 작용했다.

온라인 강의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건 인터넷 및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예견된 수순이었다. 다만, 그 순간이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리란 건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제기될 논의의 화두는 비교적 분명하다. 대면 강의에 비해 전달력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비대면 진행이 어려운 실기, 실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를 것인지 등이다. 또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기 위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풀어야할 숙제다. 지금이라도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개선의 지표로 삼고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한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최근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이 돌 때마다 주기는 짧아지고, 세계사회에 주는 충격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코로나19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팬데믹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코로나19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지시켜 혼란에 빠지게 했다. 대학은 가장 먼저 시행착오를 겪으며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선두에 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남긴 증상을 회복하며 동시에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면역을 갖춰야할 시기다.

현재 주어진 상황을 테스트베드 삼아 온라인강의 확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을 이어가자.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후 도래할 그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만평 - 성형의 그림자, 공장식 수술에 대책 필요



양어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세시봉

김수혁 <기획팀장>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2012년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다. 서로 독립된 이야기에 등장하던 슈퍼히어로들이 하나의 작품에 함께 등장한다는 오래된 만화책 속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스크린 위에 옮긴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5억 불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어벤져스를 재미있게 본 사람들은 대체로 간결 명료한 스토리, 개성 있는 캐릭터, 박진감 넘치는 액션, 실감 나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호평한다. 동시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오락성만 추구할 뿐 다시 볼 필요가 없는 ‘팝콘 무비’에 불과하다는 평도 많다.

하지만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도 삼라만상의 이치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긴 영화라면 오죽하겠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 마음만 먹으면 재미있는 오락 영화 한 편에서도 진지한 정치적 담론을 이끌어 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봤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들을 위해 주목하고 싶은 영화 속 장면 두 개를 소개하겠다. 장면 하나, 영화는 사악한 외계

인 로키의 지구침공을 중심 사건으로 다룬다. 로키는 지구에 온 목적을 묻자 이렇게 답한다. “나는 너희를 자유로 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왔다.” 로키는 인간이 실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탁월한 통치자에 의해 지배받으며 자유로운 선택이 부여하는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라 말한다. 장면 둘, 지구의 평화 수호를 목표로 하는 초국가적 정보기관 ‘윌드’의 선량한 필 콜슨 요원은 로키의 손에 죽어가며 “네가 질 거야”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을 비웃는 로키를 향해 그는 “넌 믿음이 부족해”라고 덧붙인다.

고등학생 시절 이 영화를 처음 본 뒤 오랫동안 의문스럽게 남아 있던 콜슨 요원의 이 요상한 한마디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악당에 대한 반론으로 이해한 계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글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일기에 썼다는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짧은 문장이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질곡을 온몸으로 겪었다. 인간의 저열함, 인간이 만든 세상의 추악함, 변화와 발전을 희구하는 열망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똑똑히 보았고 셀 수 없을 만큼 되뇌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고 결론 내렸다. 아마 그의 결론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믿음의 표현 아니었을까. 흔히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말한다. 사회가 마주한 문제 하나를 풀어내기 위해 정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선택하는 다양한 가능성들의 결과는 때로는 끔찍하고,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눈물 나도록 감동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밥 먹듯 마주하는 끔찍하고 한심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들은 우리에게 좌절을 준다.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할퀴고 쥐어뜯는다.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면 불신과 냉소, 체념과 패배주의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다. 타협을 협잡으로, 미완을 실패로, 논쟁이 빚어내는 잡음을 무익한 소음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만일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는 날이 오면 인간이 할 일은 구원자를 향한 복종뿐이라는 로키의 장담은 사실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민주주의 정치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낙관주의가 아닐까. 정치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로 향하는 걸음걸음은 민주주의 정치를 지속시키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인생과 발전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제는 보아야 할 때

취재수첩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너무 예뻐서 더 아픈 계절이다.

“기자님 혹시 ‘권대희 법’이라고 아십니까?” 다른 사안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취재원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대학주보 기자와 만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얼핏 들어도 학생 기자가 감당하기에는 큰 사건이라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일단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최선이었다.

그렇게 어머니와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을 때였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내가 잘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가득해 입이 바짝 말랐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취재에 대한 결심이 굳어졌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연이 안타까워서가 아니었다. 이런저런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싶다”는 어머니의 진

심이 기사를 써야겠다는 확신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었다.

곧 마련된 인터뷰는 유가족 분들의 집에서 진행됐다. 책상과 책장을 넘어 한쪽 벽면에 쌓인 소송 서류들, 발로 뛰며 정리한 녹취록이 가득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서 어머니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무렵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질문과 대답이 계속될수록 그 기분은 점차 선명해졌다. 불편함이었다. 취재의 기본인 질문과 대답이 이상하리만치 불편하게 느껴졌다.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아들에 대한 기억과 사건, 소송과 같은 아픈 기억을 되새겨야 함을 모르지 않는 것이 그 이유였다. 취재의 전 과정이 유가족에게 상처를 더듬는 일임을 알았다. 내내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셨던 어머니는 “혹시 취재에 응하는 게 힘들지는 않으시나”는 질문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다. 어머니는 “처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마음먹었을 때 각오한 일”이라면서도 “처음에는 ‘권대희 씨는 어떤 아들이었나’, ‘어떤 심정인가’하는 인터뷰 레퍼토리가 버거워 울지 않고는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질문에 답할 때보다 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더 지치고 힘든 것 같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라 따끔 보도가 무산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사안이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공론화의 핵심인 대중이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다시 마음이 답답해졌다.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일종의 비극을 상상하고 피부로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000법’을 외치는 선두에는 대개 그 비극을 겪어본 이들이 서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비극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보아야 한다. 논의되는 000법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가 아닌 그 배경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대희 법 역시 마찬가지다. 덮어놓고 권대희 법 제정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성형수술의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배경을 알아야 함을, 보다 나은 사회와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논의의 장에 대중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이다.

정치권 네거티브에 불똥 튄 국제캠

TV조선, 고민정 학력위조 보도
국제캠 총학 “구성원 분열조장”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가 정치권 네거티브 논쟁에 휘말렸다. 논란은 우리학교 국제캠 졸업생(졸업 당시 수원캠퍼스)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광진구을(乙)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학력논란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미래통합당 당원모임 대표 김영국 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고 후보의 학력이 허위기재 됐다며 비판했다. 김 씨는 고 후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경희대학교 2003년 졸업·서울’이라 게시한 것을 학력위조라 지적했다. 이어 TV조선은 ‘뉴스TV조선’이라는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 김 씨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 후보에게 “지방대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냐”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경희대학교 용인캠퍼스’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TV조선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국제캠 총학은 TV조선이 본교의 캠퍼스를 ‘용인캠퍼스’라 지칭하며 우리학교의 역사에 대해 언론사로서의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가 서로 다른 대학인 듯 한 분위기를 영상 전반에 걸쳐 내포했으며 구성원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규탄했다.

국제캠 양성민 총학생회장은 “영상과 관련해 TV조선에 항의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는 뉴스가 아닌 유튜브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TV조선 담당 PD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사과문을 게시해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이 발표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달 31일 TV조선 뉴미디어본부 제작팀은 유튜브 ‘뉴스터(NEWSTER)’



채널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는 경희대 국제캠퍼스가 이원화 캠퍼스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멘트를 사용한 점이 지적됐고 ‘용인캠퍼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한 잘못도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잘못된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에 대해 제작진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졸업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TV조선의 사과문으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논란은 이내 재점화됐다. 지난 5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 광진구을(乙) 국회의원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후보자토론회 초청’ 영상에서 고 후보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구글(Google)에 고 후보의 대학시절 학력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 후보를 등록할 때 서울캠퍼스

라고 쓴 적도 없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구글 프로필은 저희가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재·졸업생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해당 매체(TV조선)에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타 매체에서 학교 이원화 관련 사안에 대해 문의하자 확인답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기자는 우리학교가 이원화 캠퍼스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년 입시 사이트와 언론 등에 이원화 캠퍼스라는 것을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없는 논란을 만들어 학교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과는 별개로 분교 당시 졸업생의 분교 졸업 소급 적용과 관련해 학사지원팀 박은규 행정차장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학위증으로는 캠퍼스를 구분할 수 없이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분교이던 당시 졸업자는 분교 졸업생이며, 지금은 교육부의 이원화 인가를 받았지만 분교 졸업생이 분교 졸업생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등교사 임용고시 역대 최다 합격 “교육대학원에 도움 받아”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우리학교가 2020학년도 전국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서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교육대학원 행정실은 지난 3월 “2020학년도 전국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현재까지 69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대학원에서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격 여부를 조사했고 회신 온 학생이 69명”이라며 “실제 합격자 수는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수는 2018년 38명, 2019년 46명에 올해 69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임용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교원임용고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임용고사반을 담당하는 조영하 교수는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 현직교사 특강, 교육학 특강,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임용 준비생들을 돕고자 했다”며, 특히 ‘잘 가르치는 교사 경연대회’와 ‘병설교 현직 교사 멘토링’을 임용고시 합격자 수 증가 비결로 꼽았다.

조 교수는 “잘 가르치는 교사 경연대회는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임용고시 2차 시험인 수업 실연을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직 임용고사 심사자를 경연대회에 모셔 실천처럼 코멘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설교 현직교사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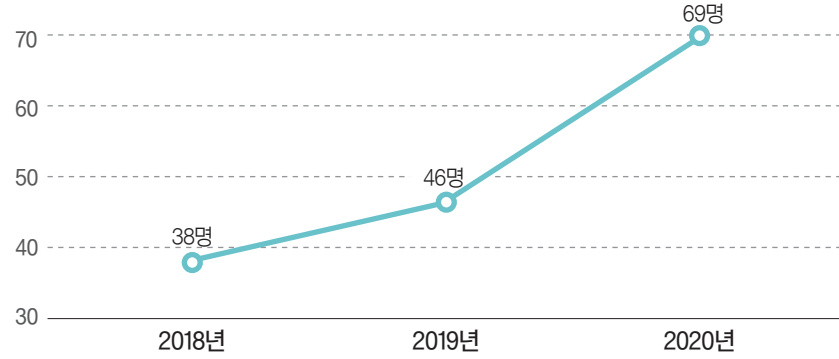
링에 대해서는 “병설교 교사진과 교원임용고사반 학생을 1대 1로 연결해 수업 기술은 물론 교직자의 삶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손광덕(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씨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경연대회를 통해 임용고시 2차 수업 실연을 대비했고, 방학 실기 특강에선 수업과 더불어 실기를 준비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대학원의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잘 구축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원임용고사반은 교육대학원생뿐 아니라 학부 교직 과정 이수생도 이용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우리학교는 사범대학교가 없어 교직 과정 학부생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없기에 학부생 혼자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시험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교원임용고사반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과정 학부생들도 교육대학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설교 네트워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학부 졸업생 박진우(물리학 2014) 씨는 교원임용고사반에서 시험을 준비해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박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해서 혼자만의 공부 공간이 없었는데 교원임용고사반이 덕에 개인 공부 공간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교직팀의 수강료 지원과 교육대학원의 병설교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경희대학교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추이



용역으로 돌아가는 일부 청소노동자… 학교 측 “노동자 정규직화가 최종 목표”

이지민 기자 delicado@khu.ac.kr

자회사를 설립해 청소노동자들을 채용했던 우리학교가 해당 계약이 만료돼 용역업체를 재선정했다. 이를 두고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경희대지부(노조)는 “자회사를 폐지한 학교 측 행위는 부당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7월 자회사 ‘케이에코텍’과의 계약 만료 후 올해 청소 용역업체 ‘C&S’와 계약을 맺었다. 앞서 우리학교는 자회사 계약 종료일

자회사 ‘케이에코텍’ 계약 만료 후 용역업체 선정

한국노총 “학교 측 행위는 부당한 처사”

총무팀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사 기조는 그대로”

이 다가오자,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규직화에 대한 청소노동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서울캠퍼스(서울캠) 기준 총 135명 중 46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조 소속 노동자들 중 대다수는 정규직화를 반대하며 자회사에 남은 상태다.

노조 박경선 지부장은 “5, 60대 청소노동자들이 임금과 관련된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기에 정규직화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지부장은 “자회사인 ‘케이에코텍’의 폐지가 불만족스럽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쟁하지 않는 것일 뿐 임금이 낮아지거나,

학교 측의 입장이 바뀔 경우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자회사 폐지와 동시에 용역 업체로 돌아가게 되면, 임금 인하 등의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우리학교는 청소노동자, 희망제작소와 함께 ‘사다리포럼’을 만들어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희모델’을 추진한 바 있다. 그 후 산학협력단에 자회사 ‘케이에코텍’을 설립해 2017년 ‘케이에코텍’과 계약을 맺었으며, 2018년 ‘기능직종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에 대한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케이에코텍’과의 계약이 만료될 때 청소노동자 전원을 경희대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희포 팀장은 “인사팀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급여를 낮춘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사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자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라고 전했다.

“생각은 달라도 우리는 청년을 위해 뚝다”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이지민 기자 delicato@khu.ac.kr

지난 6일, 8일, 10일 사흘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가 주최·주관하는 ‘제21대 총선 청년후보-대학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비례대표 후보(28), 8일에는 국민의당 김근태 비례대표 후보(29), 10일에는 미래한국당 김은희 비례대표 후보(28)가 각각 참석했다. 간담회는 후보자 소개 및 정당 공약, 학보사 공통 질문, 자유질문, 최종 발언으로 진행됐다. 후보자 소개 및 정당 공약에서 전용기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목격하며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김근태 후보는 “조국 사태 때 마이크를 잡으며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희 후보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졌다”며 “같은 입장을 가진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학보사 공통 질문은 서언회 소속 간담회 참여 학보사에서 사전에 질문을 취합한 뒤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이 사는 사회에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전용기 후보는 “청년이 공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근태 후보는 “진영논리가 심화된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은희 후보는 “저는 ‘N포세대’라고 생각한다”며 “결혼과 연애가 하고 싶어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3당 후보들이 학보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전용기, 김근태, 김은희 후보(왼쪽부터)



(사진=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제공)

제21대 총선 청년후보-대학기자 간담회

전용기 후보 “청년이 공감할수 있는 청년정책 필요”

김근태 후보 “진영논리 심화된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 필요”

김은희 후보 “결혼과 연애 하고 싶어지는 나라 만들자”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의 정치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용기 후보는 “청년정책제안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상도 주고 정책 관련 단체도 소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태 후보는 “게임 산업, 성 갈등과 같은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의제를 제시하면 정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김은희 후보는 “청년과의 공감을 통해 거리감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가의 탈정치화가 현실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전용

기 후보는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서 정치가 청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근태 후보는 “탈정치화로 볼 수도 있지만 이념과 채널의 다양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여론과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노력한다면 이미지 정치에서 정책 위주의 정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은희 후보는 “대학가에서 정계에 대해 실망이 반복되다 보니 기대조차 없게 돼 불신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많은 청년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고

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용기 후보는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줄 사람이 같이 밀어주고 같이 목소리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후보는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회를 주는 것보다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청년이 이익 집단화가 아닌 가치집단화로 조직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후보는 “기성 정치인이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청년 정치인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내 청년 정치인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질문은 후보자가 기자를 지목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용기 후보는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에서 실시한 ‘청년 비례대표’의 실패론과 관련해 “프레임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청년 비례대표는 청년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근태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한 ‘전역 장병 사회진출격려금 2천만 원 지급’이 ‘현금살포성’ 공약이라는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지가 아니라 전역 장병이 안보에 노력한 것에 대한 조건적 복지”라며 “현금살포성 복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은희 후보는 정부의 출산율 관련 정책에 대해 “정책을 만들었으니 아이를 낳으라는 강요처럼 느껴졌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젊은 세대에게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발언에서 전용기 후보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청년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김근태 후보는 “언제든 소통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은희 후보는 “청년에게 신뢰받고 청년과의 연대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 전면 출입통제 중 … 용무 없는 외부인 출입 제한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우리학교가 외부인 출입제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우리 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캠퍼스에 몰리는 상춘객들을 통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제캠퍼스 정문 앞에는 펜스가 둘러졌고, 서울캠퍼스는 근무자가 서서 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정문 이외의 통로는 폐쇄하거나 외부인 출입 통제 입간판, 바리케이트 테이프 등을 이용해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에도 학교 내부에서는 외부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 4월 5일 국제캠 사색의 광장에는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마스크조차 끼지 않은 외부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화장실을 이

용한다는 이유로 학교 건물에 마음대로 출입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 건물은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잠금놓은 상태다. 출입증을 건물 입구에 태그하지 않으면 내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되어 있다. 그러나 관계자가 출입하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같이 건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발견됐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만 모여 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는 여전히 집단 감염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캠 스보안업체 에스원은 “외부인들이 보통 등산로나 샛길을 통해 들어오는데 캠퍼스의 크기가 너무 크고 산으로 둘러싸여있어 모든 경로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출입이 허용되는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오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는 출입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출입 통제 입간판을 뒤로하고 학교 내부엔 외부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외부인을 골라내기 위해 학교 측은 출입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국제캠 에스원은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학생증이나 관계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 달라 요구하고 외부인이라면 나가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직원의 말을 듣는 척하

며 다른 장소로 가 꽃놀이를 계속 즐기고 심지어 관리자의 통제에 화를 내는 외부인들도 있다”고 통제에 어려움을 전했다. 학교 측은 더 철저한 외부인 통제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이희표 팀장은 “정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철저하게 통제

하고 있고 후문과 남문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폐쇄했다”며 “그 외에 샛길이나 쪽문은 입간판과 함께 막아 놓았다”고 자세한 출입 통제 방식을 설명했다. 또한 “바리케이트를 통해 등록된 차량만 들어올 수 있다”며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주차관리소에서 용무 확인 후 부분적으로 들여보낸다”고 말했다. 서울캠 측은 추가 대책으로 “현재 동대문구 구청장과 연락해 지역 주민센터나 단상회 때 학교 출입 통제와 관련한 안내를 부탁해 놓았다”며 “현재 외부인을 통제하는 방식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캠 또한 최소한의 부분만 제외하고는 정문을 폐쇄해 놓은 상태다. 국제캠 측은 “현재 최대한 등록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더 확실한 통제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과장으로 ‘낙고’, 의료윤리 ‘모른체’ 법안은 표류 중

고(故) 권대희 씨 유가족 “병원의 마구잡이식 공장수술 피해자”
의료법 위반 광고, 적발된 의료기관 두달간 278곳 달해
‘권대희 법’ 발의 하루 만에 철회, 아직까지 논의 없어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모여라! 수험생!’ ‘피어나라 나의 20대!’ ‘수능 끝, 예쁨 시작!’ ‘수능 그 퀘이트!’

실제 성형외과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들이다. 성형으로 예뻐지고 잘생겨졌다는 사람들의 전후 비교 사진을 내건 지하철 역사, 건물 광고도 빠질 수 없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다수다. 매해 수능이나 방학 기간이 다가오면 전국 성형외과들은 화려한 광고와 이벤트들로 20대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성형을 결심하는 학생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성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 어플리케이션의 누적 가입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리서치 전문 업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올해 2월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0대의 34%(257명 중 87명)가 “성형수술을 경험했거나 고려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생 사이에서 성형은 하나의 ‘미용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성형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한편,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8일,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고(故) 권대희 씨는 ‘14년 무사고’를 자랑했던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권 씨는 두 달 동안 강남 일대 유명하다는 성형외과 8곳을 모두 직접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중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권 씨는 곧 중태에 빠졌고, 중앙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49일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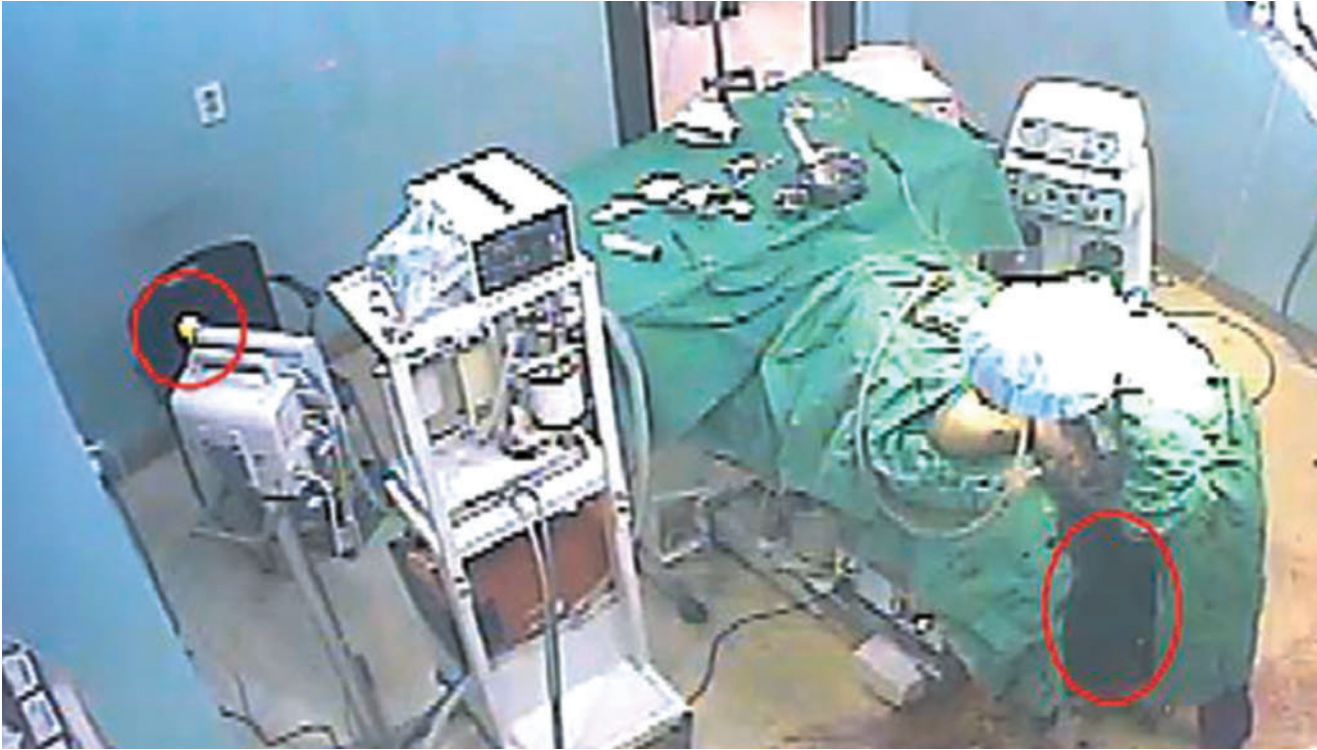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 따르면 사인은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우리 아들은 병원의 마구잡이식 공장수술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 씨가 아들에 얹힌 죽음의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수술실 CCTV 영상을 입수한 덕분이었다. 7시간이 넘는 수술 영상에 담긴 수술실의 실태는 참담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끝까지 수술을 책임지겠노라 약속했던 병원장은 권 씨의 뼈를 절개한 직후 사라졌다.

전문 감정 기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술실에 남아 있던 간호조무사가 홀로 권 씨를 지혈한 시간은 33분에 달했고, 그동안 권 씨가 흘린 피의 양은 3,500cc가 넘었다. 13번에 걸쳐 수술실 바닥에 쏟아진 피를 밀대로 닦아 내기도 했다. 끝까지 책임진다면 원장도, 마취과 의사도 권 씨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알고 보니 해당 병원장은 권 씨 이외에도 다른 2명을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다.

의료윤리 위반행위, 성형계 고질병

피해자는 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있으나마나’라는 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4년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및 코 수술을 받던 고 등학생이 뇌 손상 장애로 인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성형외과의사회의 실태조사 결과 유령수술(환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 수술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집도하는 행위), 대량의 수



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CCTV 캡처 화면. 의사는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가 권 씨를 지혈하고 있다. (사진=권대희 씨 유가족 제공)

면마취제 투여, 의사면허대여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유령수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5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대리수술 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매년 1회 이상 미용성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행정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용성형 실태조사는 그 뒤로 없었다.

일각에선 허위과장광고와 유령수술, 공장수술 등의 의료윤리 위반행위를 성형외과의 ‘고질병’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이자 유튜브에서 ‘닥터 벤데타’ 채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원장은 “권대희 학생과 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유령수술과 공장식 수술 등의 생명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수술대에 사람을 놓아놓고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누군가가 들어와 신체를 절단한다고 생각해보라”며 “정말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의 광고는 학생들이 성형을 결심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정호영 교수팀은 대구 지역 6개 대학 신입생 1,0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대학신입생의 남녀별 미용성형수술 계획 실태 및 관련 요인)에서,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TV 등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영향 ▲성형수술 의료계의 비즈니스 전략을 학생들이 성형을 결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 원장은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매체와 병원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한국과 같이 신체 부위를 마치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상품처럼 묘사하는 성형광고는 모두 외국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광고들을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실제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의사 중에는 3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이도 있으며, 지금도 거짓 광고를 통해 수많은 대학생이 죽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과장광고 판단 기준도 미비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의 행위는 한국에서도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의료인이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사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총 1,059건의 광고물과 278곳의 의료기관이 적발된 바 있다. 이는 전체의 절반 정도나 되는 비율이다.

김 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판단기준이 불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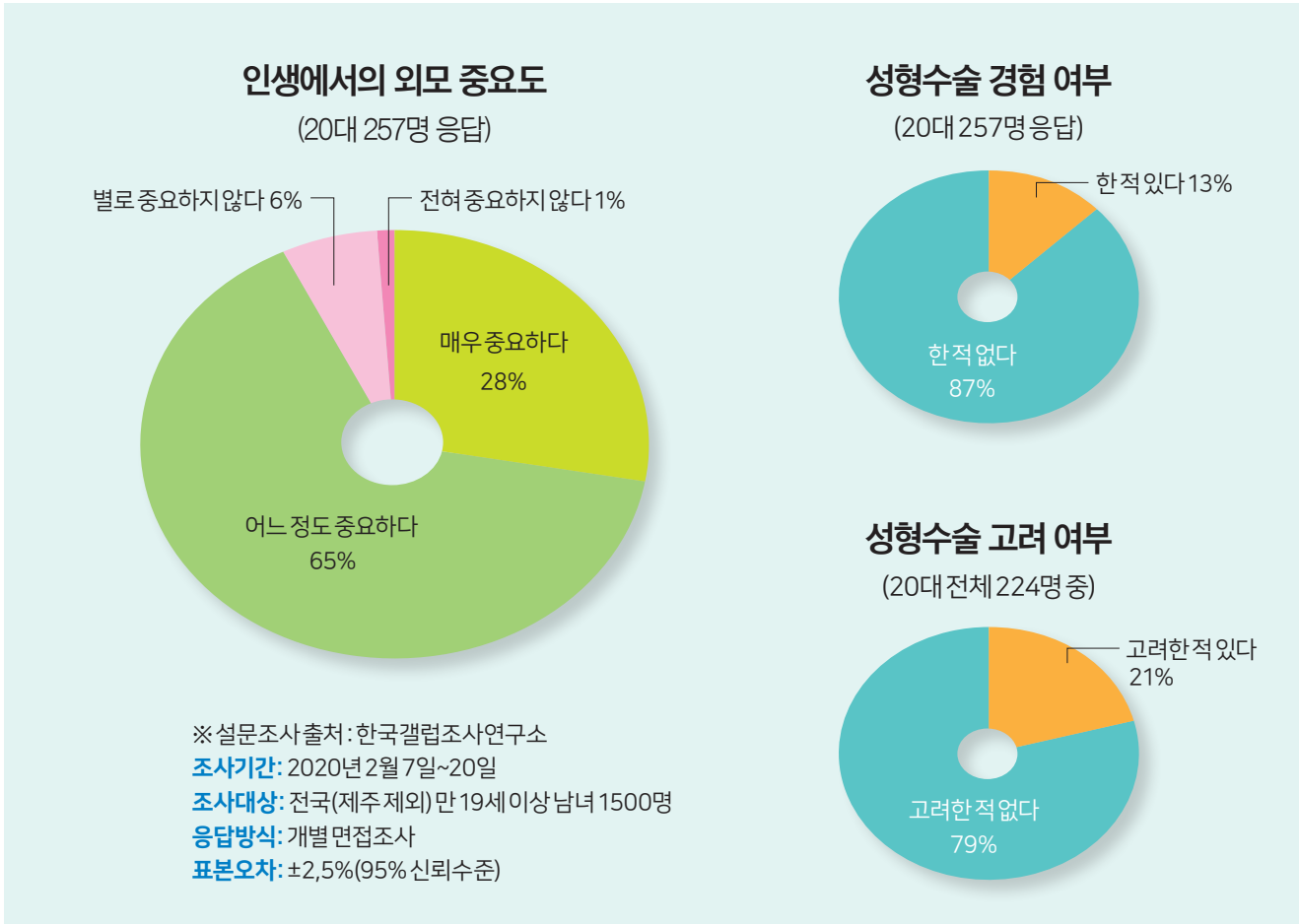
하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100명을 성형해 99명이 죽고 나머지는 한 명만 성공한 경우, 그 한 명의 결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현행 제도는 제재하지 못한다”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의 의료광고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15년 넘게 의료소송을 담당해온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의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다 해도 면허 정지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에는 반대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안 철회 의원 “의사들이 항의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권대희 법’은 작년 5월 14일, 안규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루 만에 철회됐다.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의 의원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그 뒤 6일 만에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법안을 철회했던 5명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에게서 많은 항의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꼭 성형을 해야 한다면, 까다로운 환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수술 여부와 병원을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 변호사는 “특히 온라인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논문 등의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가 받으려는 수술의 평균 수술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보조자를 동반하는 게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소득 분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학제도 … 사각지대 없나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현실과 다른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없다.”

국가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학생들에게 차례로 공개됐다. 이에 학내 커뮤니티에선 지원구간 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쇄도했다. 가계가 곤란해 학업 수행이 어려움에도 장학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다거나, 소득분위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장학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근 대학가에서 장학금의 본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로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활용해 각 학생의 가계곤란정도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장학제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대학의 장학 게시판에 올라온 대외 장학금도 대부분 1차적인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3-8분위’를 제시하고 있다. 우정장학 등의 교내장학금 역시 한국장학재단의 산정 결과를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모의 계산을 이용한 한 가계 상황을 가정해 계산해 보면, 서울 시내에 전세로 거주하는 4인 가구 중, 부모님과 형제가 모두 임시직으로 근무해 각각 200만원의 수입을 얻고, 가정에 생계를 위한 자동차 재산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9분위에 해당한다(부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여기에 실직,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이 생겨 학비 보조가 필요해지면, 해당 학생은 사실상 외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학 지원이 전무한 셈이다.

학생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혜택 범위에서 배제되는 순간 다른 장학제도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퇴직 등의 긴급한 가계 사정, 혹은 대학생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을 반영할 수 없는 소득 분위로 대부분의 장학금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장학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 산정 공식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 산정 기준을 살펴본 결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인적 공제를 통해 가계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재산에 대해서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분위 산정에 반영을 하고 있었다. 가계의 현금 흐름은 학생의 학업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월 소득을 중심으로 가계 곤란도를 파악하는 공식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소득분위 산정이 현실과 다르다고 체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이 국

승인된 국가장학재단 소득분위 재산정 요청 건수 3년간 5만7천여 건
국가장학금 지원 공백 적극적으로 찾아 보완한 장학제도 필요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공식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소득 - 소득공제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 4.17% / 3 자동차 : 월 4.17% / 3 금융재산 : 월 6.26%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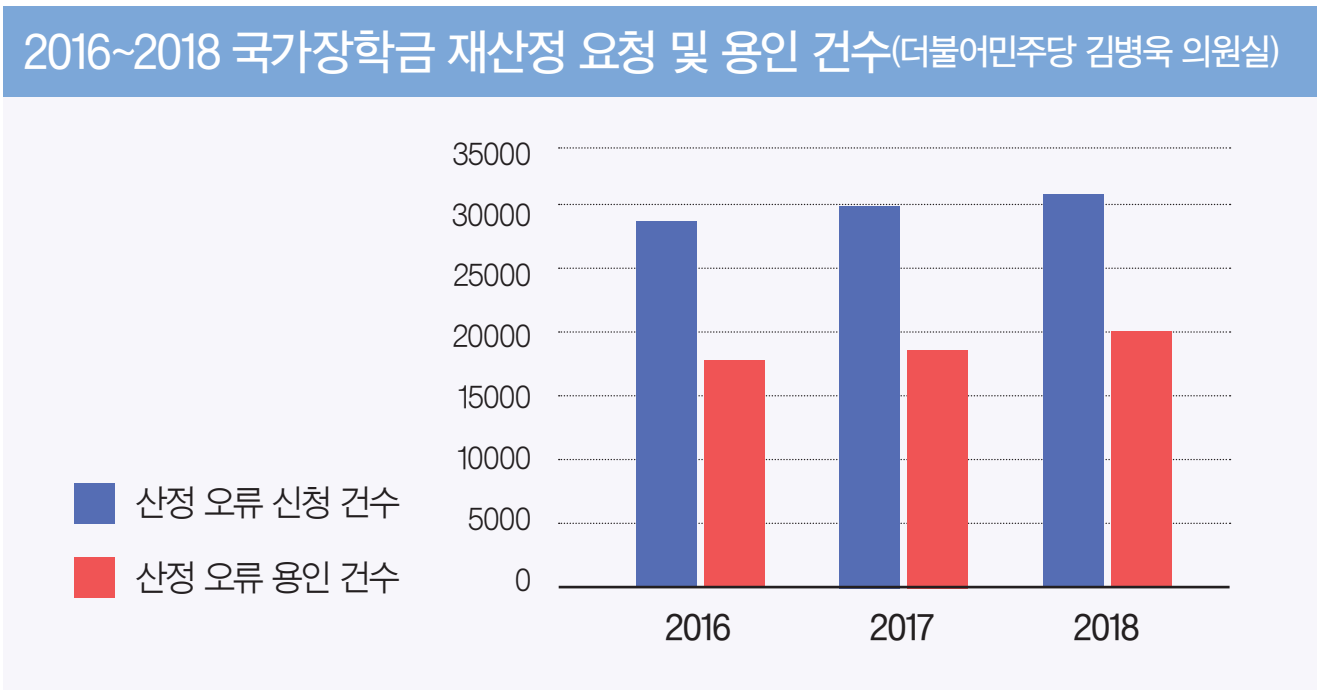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1) 소득공제

가) 학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액에서 130만원 공제.
나) 가구원 : 가구원별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공제

2) 재산공제

가) 기본재산액 : 5,400만원 공제 적용



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재산정을 요청한 건수는 매년 3만 건 정도다. 3년간 재산정 요청이 용인돼 지원구간이 바뀐 건수도 5만 7천여 건에 달한다. 학생이 요청해야만 재산정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오류건수는 알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 산정이 실제 상황과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자료를 최신화하지 못하는 경우다. 부모님의 퇴직이나, 부채 증가 등 지원구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학생이 재산정을 요청하면 상황에 맞게 지원구간이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산정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상황과의 시간적 차이가 상당한데다, 학생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오류가 방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일부 반영되지 않는 자료들이 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사업 자금 대출, 한도 대출 상품의 경우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가

계 내의 긴급한 상황 또한 지원구간 산정 공식에 반영될 여지가 적다. 질병, 실직, 일부 과도한 부채 등 사회적 위험이 일률적인 기준에는 포착되지 않는 것이다.

서봉균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는 “보편적인 장학금 혜택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제한된 재원 내에서는 소득 중심의 현 산정 기준은 타당하다”면서도 “소득 파악 자체에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과소평가되거나, 다자녀 가구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 문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생업을 위한 자동차 등의 재산 보유도 산정 공식에는 재산으로 반영돼 불합리할 수 있다”며 일부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지원구간 사이의 괴리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 장학팀 임연희 과장 역시 “가계곤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라면 서도, “해당 지표가 완벽한 것은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 제도를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 혹은 일부 자료

의 미반영으로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이를 보완할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장학금을 보완할 타 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 역시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장학제도에는 성적에 따른 장학제도와, 긴급 구호 목적의 장학제도 등이 있다.

다만 성적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학업을 장려한다는 장학금의 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것이 대학 전반의 흐름이다. 마찬가지로 취지로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넓히며, 성적 우수자에겐 표창을 수여하는 식의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봉균 교수는 “장학제도는 본질적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취지를 갖고 있고, 학업을 잘 수행한 학생은 이미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원 없이는 학업 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장학의 목적에 맞다”고 현 장학제도의 흐름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가계가 곤란하지만 지난 소득 자료와 현재의 산정 기준 내에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남은 대안은 긴급 구호 성격의 장학제도다. 먼저 장학금을 신청한 뒤 추후 관련 사실을 학생이 증명하도록 하거나, 개인의 사정을 장학재단에 설명하여 지원을 받는 방법이다. 우리 대학의 일부 장학제도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임연희 과장은 “장학금을 받기 어려운 지원구간에 속해있지만 부모님 및 본인 질병, 소득 급감 또는 퇴직, 사망 등의 사유 발생했을 경우 ‘경희목련장학’을 신청하면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차원에서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장학사정관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해당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긴급 구호 성격의 장학제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형태의 장학제도다. 3월부터 학내 장학게시판에 게재된 관련 공지 중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을 1차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출신 지역이나 전공 등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은 교내에서 실시 중인 ‘점프 장학(성적 향상 기준)’, ‘경희꿈도전장학(학생 역량 강화 성격)’, ‘경희목련장학(가계곤란, 긴급 구호 성격)’ 외엔 없다.

장학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임연희 과장은 “소득분위, 기타 조건과 무관하게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있으며, 장학참여단 등을 통해 계속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겠다”며 장학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시대와 만난 캠페인, 역사를 바꾼 투표

교수칼럼

안승범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떤 선거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어떤 투표는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두 달 전 국내외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신화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눈부신 성취는 시대 변화에 올라탄 자들의 투표가 만든 기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물론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에 새로운 족적을 남긴 건 작품의 완성도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카데미가 비영어권 영화에 열렬한 찬사를 보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영어권 영화 중 <기생충>만큼 빼어난 작품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기생충>이 새 역사를 쓴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찾던 미국 영화 예술과학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 AMPAS라고 약칭) 회원들의 내면에 선거운동을 능가한 <기생충>팀의 ‘오스카 캠페인’이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심은 덕분이라고.

아카데미는 여느 세계적인 영화제와 달리 ‘오스카 레이스’로 불리는 홍보활동 기간을 거칩니다. 후보작 선정 및 수상작 선

정에 대한 투표권은 AMPAS 회원들에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AMPAS의 회원 구성은 할리우드 산업의 생태계에 일조하는 다양한 진영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요. 이를테면 배우, 감독, 프로듀서, 경영진뿐만 아니라 캐스팅 디렉터, 촬영감독, 의상 디자이너,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물론 분장 아티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에 이르기까지 17개 분과로 나뉜 전문가 집단이 투표권을 분배받습니다. 흥미로운 건, 8,500여 명에 달하는 회원 대다수가 투표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할 순 없다는 점입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한해 투표권이 유지되지요.

그럼에도 미국 바깥의 영화팬들에게 아카데미 시상식이 매우 보수적인 영화제로 기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해 새로운 심사위원단이 소규모로 꾸려지는 여타 글로벌 영화제들은 과격적인 수상작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아카데미의 수상작 선정 과정은 보편성과 안정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보편성’과 ‘안정성’이란 표현 배면에 영화 선정에 관한 문제적 국면이 감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까지 투표권을 가진 AMPAS 회원들 중 남성 비율은 70%를 상회했습니다. 회원의 평균 나이는 60세 안팎이었으며, 영화계 내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보면 배우들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백인의 비율이 매우 높게 유



(사진=중앙일보DB)

지되어 왔지요. 그런 까닭에 아카데미 시상식은 긴 세월, 미국 백인 중년 남성들의 입김에 의해 수상작이 결정된다는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기생충>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처럼 던져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준호를 비롯한 <기생충>팀은 지지를 호소하는 ‘오스카 캠페인’을 거치는 동안, 그러한 시대 변화의 여망에 기름을 붓고 작은 불씨를 옮기는 메시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카데미 시상식을 ‘로컬 영화제’로 규정하고 ‘자막(언어)의 벽’에 막힌 미국인의 영화 관람 문화를 상기시키는 화법은 폐부를 찔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생충>은 시대의 저류에 흐르는 목소리를 끌어안은 캠페인과 그에 부응한

역사적 투표덕분에 새 역사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받은 건 최초의 업적이며, 이는 아카데미 92년 역사를 통틀어 매우 의미있는 단절적 진화의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썼던 문장들을 다시 옮겨보고자 합니다. 어떤 선거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어떤 투표는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한 <기생충>팀의 ‘오스카 캠페인’을 좀 더 성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보다 길고 긴 미래를 가진 여러분이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소중한 권한을 진지하게 행사할 수 있길 권합니다.

참여마당

노승우
자율전공학 2018



묵념으로 시작하는 생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하교하는 길, 항상 걸어왔던 길이지만 그 날만은 특별했다. 4월 16일, 그날은 나의 생일이었다.

친구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들어간 집 안의 공기는 사뭇 조용했다. 엄마는 나를 반겨 주시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셨고, 아빠는 방금 일터에서 돌아오신 건지 외출복 그대로 우두커니 거실에 서계셨다. 두 분의 시선을 따라 간 TV에선 큰 배가 침몰하고 있는 사진만이 보일 뿐이었다.

어린 나이에 나는 그저, 행복해야만 하는 나의 생일 날 분위기가 어두운 것이 씩 맘에 들지 않았다. 모두 구조하지 못했다고 한들, 그리 큰 사고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뉴스 앵커가 빠른 구조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니, 배에 있는 수많은 구명 중 하나로 빠져나온다면 분명 모두 살아서 가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배 속에서 점점 빛이 사라짐에 절망했고, 물에 나와 있던 가족들은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속보입니다.” 만을 반복하는 아나운서를 바라보며 부모님과 함께 숨죽이고 TV를 볼 뿐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분위기는 더 침울해져만 갔다. 50명만 더, 10명만 더, 아니 1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원했지만, TV 한 편의 ‘구조자’ 수는 쉽사리 변하는 일이 없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희망을 주지도 말지. 희망이 모두 꺾인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슬픔과 고통의 감정만이 서려있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던가, 모두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사건 속에 갇혀있을 때에도 시간은 흘러갔다. 마치 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듯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절망에 쓰러져있던 사람들도 시간엔 등을 떠밀려, 점점 앞으로 기어가다가 눈물을 닦고 걸어갔다. 사라진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해서 슬픔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맘을 다해 기억하는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의 매년 생일 아침은 묵념으로 시작한다. 그때 그날, 철없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사라진 사람들과 그들을 영원히 기억할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드리고자 묵념한다. ‘세월호 참사’는 사건을 마주했던 이들 모두의 마음속 상처이다. 이 상처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아주 심한 것이기에 치료하려 하면 할수록 그 고통만 심해질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상처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상처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말이다.

2020-1학기 경희공도전장학 신청 안내문

- 지원대상**
 - 2020-1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
 -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구분 위배자, 2010-1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가계곤란정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한**
 - 경희공도전장학 기수혜자는 개인 또는 팀리더로 신청불가
 - 경희공도전장학 기수혜자를 팀원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경희공도전장학 신청주제로 타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ex) 독립연구, 전환21장학 등
- 도전분야 : ①창업 ②봉사 ③탐방 ④연구 ⑤자유주제**
 - 분야를 택일하여 장학신청
 - 도전분야와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연구분야의 경우 중간/결과보고서 등 모든 결과물을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여 하며 이 점을 참고하여 신청하되 기 바람**
- 선발인원** : 50명/팀 내외
 -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장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방법**
 - 가. (1단계) 서류평가(100점)로 최종선발인원의 1.5~2배수 선발 (2단계) 면접평가 후 서류평가(100점) + 면접평가(100점)로 최종대상자 선발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 나.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구분	평가항목
서류평가 (100점)	활동계획서(90점)
	꿈과 도전주제의 연계성(20-30점)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0-45점)
	실행결과와 공공성(10-25점)
면접평가 (100점)	장학금 사용계획의 적절성(15점)
	교수추천서(10점)
	학생지도계획의 충실성(10점)
	학생 잠재력, 도전의식 및 발전 가능성(20점)
	도전목표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20-40점)
	실행계획의 준비도 및 추진의지(30점)
	실행결과와 공동체 파급력 및 사회 기여도(10-30점)

-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배점점수가 상이할 수 있음
 - ex) 창업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45점), 실행결과와 공공성(10점)
 - 봉사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5점), 실행결과와 공공성(25점)
- 6. 장학금 지급액 : 1인/팀당 200만원~500만원**
 - 가. 개인/팀이 본인의 도전주제 및 실행계획에 따라 희망장학금액(① 200만원 ②300만원 ③400만원 ④500만원) 선택
 - ※ 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장학금액과 수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나. 장학금 선발 시 수혜금액의 1/2 선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후 잔여장학금의 1/2(수혜금액의 1/4)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 후 심사를 통해 잔여 장학금(수혜금액의 1/4) 지급
 - 예) 공도전장학금 500만원 선발자 : 선발시 250만원 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확인 후 125만원 지급, 결과보고서/결과발표회 종료 및 학인 후 125만원 지급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 이행없이 도전을 포기할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도 그 과정 및 결과물이 부실할 경우 최종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등록금 이외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라.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리더에게 전액 지급됨
- 7. 장학금 신청 방법**
 - 가. 신청기간 : **2020.03.25(수) 09:00 ~ 04.17(금) 17:30**
 - 나.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 1) 온라인신청 :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0-1학기 경희공도전장학 신청
 - 2) 서류제출
 - 가) 제출기간 : **2020.04.14(화) 09:00 ~ 04.17(금) 17:30**
 - 나) 제출처 : 학생지원센터(장학)(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8번 데스크)
 - ※ 활동계획서는 서류제출 기간 내 janghak1@khu.ac.kr로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함**
 - ※ 팀으로 신청 시 학생정보란에 팀리더 및 팀원 모두 기재 (기재형식은 자유)**
 - 다) 제출서류
 - (1) 경희공도전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력물) 1부
 - (2) 경희공도전장학 활동계획서(첨부양식) 1부
 - (3) 경희공도전장학 지도교수추천서(첨부양식) 1부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장학)

2020학년도 후기 평화복지대학원 유엔평화학과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첩경」

- UN(UNITAR, WFUNA) 관련 학과
- 평화학 석사학위 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기숙장학 제공

- 모집과정 : 석사과정
- 모집전공 : 유엔평화전공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수시)
- 모집기간 : 5월 4일 ~ 7월 4일 (수시 모집)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www.unpeace.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2020년 후기 평화복지대학원 국제평화거버넌스 학과 신입생 모집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기숙장학 제공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 모집전공 : 국제평화 전공, 인권과 시민사회 전공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5월 4일(월) ~ 16일(토)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인터뷰

어머니의 바람, “더는 아들과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길”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억울하게 간 우리 아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더는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권대희법’ 제정에 동참해주세요.”

경희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대학주보를 찾았다는 사람이 있다. ‘공장식 성형 수술’ 피해자로 숨진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다.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고(故) 권대희 씨는 지난 2016년 학창 시절 받았던 신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았다. 평소 검소하고 꼼꼼한 성격을 지녔던 권 씨가 두 달 동안 강남 일대 유명하다는 성형외과를 직접 돌아다니며 끝에 선택한 병원은 ‘14년 무사고’를 자랑했던 모 병원이었다. 학교에 다니며 조금씩 아껴 모았던 돈 650만원은 모두 안면윤곽을 위한 수술비로 들어갔다. 병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직접 책임진다고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권 씨의 어머니가 직접 얻어낸 수술실 CCTV 영상에는 참담한 실태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약속된 집도의인 원장은 다른 수술방에서 동시간대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들은 화장을 고치거나 휴대폰을 보더니 흘러내리는 권 씨의 피를 대걸레로 닦았다. 결국 제대로 된 지혈도, 수혈도 없이 권 씨가 흘린 피의 양은 3500cc가 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 따르면 사인은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다.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된 유가족은 결국 병원과의 소송을 택했다. 권 씨 어머니는 “특히 성형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유사한 피해를 또 당하지



권 씨 어머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권대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과 법 제정은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고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방지 위해 시작

않을까 걱정됐다”며 “소송과 법 제정은 이후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됐고 항고마저도 기각되는 등 상황이 마음처럼 흘러가고 있진 않다”며 “CCTV 영상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가족 죽음의 진실을 밝힐 엄두도 낼 수 없으니 정말 아떨까 싶다”고 말했다.

권대희 씨 관련 소송에서 민사 재판은 병원 측 배상책임을 80% 인정하는 1심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간호조무사들의 지혈행위는 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병원 측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출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30분가량 단독으로 지혈한 행

위를 두고 의사의 지배하에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감정서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 측이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접수하기도 했지만, 서울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이 씨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권대희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이 수술실 CCTV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의료사고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조작 여부 가능성 △법적 형평성 등의 문제로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권 씨의 어머니는 “실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유령수술이나, 집도 의사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나가는 공장수술로 아들 대희 역시 이것이 주 사망 원인이었다”며 “CCTV 설치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수술과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당시 CCTV를 공개하고, ‘권대희법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인터넷 성형 카페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등 공론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권 씨 어머니는 “‘닥터 벤데타’라는 내부고발 유튜브가 말하듯 성형외과의 공장식 수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며 “그런데 피해자들도 성형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 사건이 묻히다보니 이런 문제가 관행처럼 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려 애쓰는 이유다.

대학주보와의 만남을 희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론화를 시키고자 마음먹고 가장 먼저 아들이 다녔던 학교가 생각났다”며 “공론화를 위해 손을 모아주길 부탁하면서도 아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형의 위험에 대해 말하고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부정적으로 보일 사안에 학교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불편할지 몰라 학교를 밝히는 것을 꺼렸었다”며 “그러나 공장식 수술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 부디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있었던 2016년 당시 이 씨는 한창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아들을 키우며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일에 대한 꿈을 갖게 됐다”며 “그리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고 석사 수료와 동시에 박사 과정을 앞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 씨의 계획은 무너진 상태다. 현재 권대희법 제정을 바라는 이 씨는 “쏟아 놓은 꿈도 좋지만 소송을 경험하며 솔하게 비참함을 느꼈기에 이후에는 그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및 포기기간: 2020. 4. 16(목) ~ 4. 22(수)
- 2. 신청대상: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가. 국제캠퍼스 학생 중 서울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도 동일하게 신청함
나.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 학사 지원팀 안내문 참조
다.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음(본인의 전공 외에 2개 전공의 다전공 가능)
라.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3. 다전공 선발 인원
가. 전년도(2019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
나. 경영학과는 전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 국제 캠퍼스별로 각각 선발함
다. 연간 선발인원으로 1학기 선발 후 잔여인원을 2학기에 선발함
라.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제한 없음
- 4. 다전공 선발 기준: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함
가. 경영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기준
- 경영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3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회계·세무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나. 다전공 선발 학과
1) 다전공 이수하는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함. 단, 폐지된 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소속 전공 중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제외함
2) 다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교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다. 다전공 이수금지 전공

학생소속	서울캠퍼스 설치 전공	국제캠퍼스 설치 전공
서울 캠퍼스	의·약학 계열, 간호과학대학, 예·체능계열, 자율전공학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어문전공/영미문화전공, 동서의과학과

국제 캠퍼스	의·약학 계열, 간호과학대학, 예·체능계열, 자율전공학과, 문과대학 영어학부 영어학/영문학/통번역 학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	동서의과학과
--------	---------------------------------------------------------------------------	--------

- 5. 다전공 신청방법
가.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하단 다전공신청 → 다전공 검색 후 신청 → 지원사유 작성 → 신청 클릭
※ 학부편제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제1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1전공 신청 후 제2전공 신청을 진행해야 함
2) 신청한 본전공 및 다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2개 트랙까지 신청가능)
3) 전공 신청정보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신청정보에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6. 다전공 포기 안내
가. 대상: 이수 중인 다전공의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나. 포기방법
1)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포기대상 전공 폐지기 → 전공포기 클릭
2) 전공 신청정보에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
다. 유의사항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다전공 포기를 한 경우, 다시 다전공을 이수하려면 새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포기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2) 편제가 개편되어 다전공을 포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사지원팀(961-0053~4)로 문의바람

- 7. 다전공 승인 및 포기 확인 기간: 2020. 5. 1(금) 예정
가. 확인방법: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승인내역 확인
나. 유의사항: 다전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다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20학년도 1학기 본전공(제1전공) 선택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본전공(제1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제1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2020. 4. 16(목) ~ 4. 22(수)
- 2. 신청대상
가. 학부(과) 단위 입학생 중 세부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
1) 해당학부: 영어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언론정보학부, 언론정보학과(2010학년도 입학자), 경영학부, 호텔관광대학 소속 학부, 생활과학부
2) 예외학부: 전공배정제와 전공확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자율전공학과, 미술학부, 무용학부

- 3. 신청방법
가.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전공배정신청 클릭 → 지망전공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나. 신청한 본전공(제1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
다. 본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편제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교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 4. 유의사항
가. 본전공(제1전공)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나. 매 학기 본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한 전공을 변경할 수 있음
※ 본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20학년도 1학기 전공 트랙교육과정 신청 및 포기 안내

“전공트랙과정”이란 학과의 교육과정 안에 마련된 전문화된 전공교육체제로,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들을 일종의 계통도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학업 목표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에 대하여 전공트랙과정을 신청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를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2020. 04. 16(수) ~ 04. 22(금)
- 2. 신청대상: 전공 트랙교육과정 신청 또는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 3. 대상전공
가.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본전공(제1전공)
나. 이수가 승인된 제2전공(또는 제3전공) 중 전공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된 전공
- 4. 신청방법
1)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전공 세부목록 폐지기 → 트랙신청 클릭 → 트랙확인 후 신청 클릭
※ 유의사항
1) 전공 승인신청 시 함께 신청한 전공트랙은 전공 승인 불허시 함께 취소됨
2) 단과대학별로 트랙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3) 한 전공당 트랙은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함

- 4) 본전공(제1전공) 신청은 학생의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선택가능하며, 졸업시에는 경희대학교 학적 → 교과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포기방법
1)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전공 세부목록 폐지기 → 트랙포기 클릭 → 트랙포기 사유 작성 → 포기신청 클릭
- 6. 유의사항
가. 승인된 전공 및 트랙과정은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해야 함
나. 매 학기 트랙 신청기간에 신청한 트랙교육과정을 변경 및 포기가 가능함
다. 트랙교육과정을 승인받고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함
라. 각 전공별 트랙과정의 세부 이수요건에 관해서는 학과별 교육과정 시행세칙 또는 붙임 전공별 트랙교육과정 이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 트랙교육과정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